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2013. 4

Manna of Choonghyun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욥기 · 로마서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대한예수교
총회 창립 100주년
충현교회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자기를 부인하는 삶

Contents

- 8 매일성경묵상 로마서 1장 ~ 로마서 6장
- 16 1과 안타까운 선지자
- 26 매일성경묵상 로마서 7장 ~ 로마서 12장
- 34 2과 풍성한 주의 은혜
- 46 매일성경묵상 로마서 13장
 욥기 30장 ~ 욥기 34장
- 54 3과 우리는 누구인가?
- 64 매일성경묵상 욥기 35장 ~ 욥기 40장
- 72 4과 두 번째 부르심
- 82 매일성경묵상 욥기 41장 ~ 욥기 42장
- 84 부록 성경이란 무엇인가?

4 April 2013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 로마서 1장	2 로마서 2장	3 로마서 3장
7	8 로마서 7장	9 로마서 8장	10 로마서 9장
14	15 로마서 13장	16 욥기 30장	17 욥기 31장
21	22 욥기 35장	23 욥기 36장	24 욥기 37장
28 제2차 학습세례식 장애인의 날	29 욥기 41장	30 욥기 42장	

May

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4 로마서 4장

5 로마서 5장

6 로마서 6장

11 로마서 10장

12 로마서 11장

13 로마서 12장

18 욥기 32장

19 욥기 33장

20 욥기 34장

25 욥기 38장

26 욥기 39장

27 욥기 40장

교외 주요 일정

4월 28일

제2차 학습세례식
장애인지주일

나의 주요 일정

- ❶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❷ 김성관 위임목사님을 복음의 나팔로만 사용해 주시고,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김동하 후임 담임목사님이 되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 ❸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 ❹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❺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❻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 ❼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❽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❾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공사 및 양로원, 함양충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 ❿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를 막고 있는 거대한 죄의 돌이 굴러가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빈 무덤을 보고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모든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붙들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슬픔의 눈물을 승리의 눈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2013년 4월을 맞이하여 위임목사 김성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매일성경묵상

가정예배·구역예배·대학청년부 GBS

HOLY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 1장
찬송가 298장

묵상노트

로마서는 성경의 진술 가운데 가장 분명하고 풍성하게 복음의 핵심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속 성경' 이요, '복음 중 복음' 이라고 할 정도로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1절)이라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놀라운 계획과 성취, 완성을 이루셨음을 내포하는 표현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 곧 약속에 근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 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2절). 언약의 핵심은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의 절대적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은 그 언약에 수동적으로 참여하여 은혜를 입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성육신하게 하시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하시고(3절), 성결의 영으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4절).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영적 생명(16~17절)인 동시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엡 1:3)인 것입니다.

• 은혜(5절) : 라틴어 '그라치아'로 '총애, 호의'를 뜻한다. 즉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총애'라는 의미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17)

For in the gospel a righteousness from God is revealed, a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from first to last, just as it is written: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Rom. 1:17)

기도제목

- ① 복음의 참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율법을 이루는 복음

2

화요일

율법은 어떤 행위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통해 의를 이루고자 한다면 인간은 그 법에 따라 정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율법이 성립되어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는 것을 분명히 나타냅니다(13절). 사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인간은 누구나 법 아래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가 율법적 근거에 따라 자신의 양심에 의하여 판단을 받습니다(15절).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율법을 의지하고 그 율법에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을 영위했습니다(17절). 그러나 인간은 결코 율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조차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21~22절). 인간은 구약 시대로부터 단지 죄에 죄를 더할 뿐 그 어떠한 율법의 요구도 정당하게 만족시킬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일 뿐입니다(23절).

인간에게는 율법을 성취할 능력도 실력도 없습니다. 그 어떠한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율법을 통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인간이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의 문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 율법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으로 그 율법이 성취되었음을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28~29절). 이는 율법을 내면적으로 성취하시고 본질적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을 나타냅니다(29절). 율법의 의는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하여 이루는 종교적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롬 2:29)

No, a man is a Jew if he is one inwardly; and circumcision is circumcision of the heart, by the Spirit, not by the written code. Such a man's praise is not from men, but from God. (Rom. 2:29)

로마서 2장
찬송가 453장

묵상노트

• 조문(27절) : 원어상으로 보면, '기록된 것'으로 '문자, 책, 계산서, 서신' 등을 의미한다. 본문의 경우에는 모세의 율법서를 가리킨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 ① 나의 모든 것으로가 아닌 오직 주로 인해 살아가며,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을 복음의 나팔로만 사용해 주시고,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김동하 후임 담임목사님이 되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화목하게 하는 복음

로마서 3장
찬송가 385장

묵상노트

죄란 하나님을 떠나 인간 스스로 사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인류의 첫 조상이며 언약의 대표자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 된 인간의 상태에 대해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10~12절)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왜곡시키며 오히려 허망하고 썩어질 세상적 우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롬 1:21~23). 타락 후 그 죄는 인간의 실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인격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치 인간이 죄이고 죄가 인간이 되어 버린 형국과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체이고 궁극적 본성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21절). 그 의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여길 수 없는 인간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22절).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막연한 종교적 신념이나 철학적 사고가 아닙니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통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와 정죄를 완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로 전가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은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 하는 놀라운 신자 됨의 위치와 지위, 그리고 특권을 얻게 했습니다. 이것이 화목케 하는 복음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롬 3:25)

God presented him as a sacrifice of atonement, through faith in his blood. He did this to demonstrate his justice, because in his forbearance he had left the sins committed beforehand unpunished--(Rom. 3:25)

• **미쁘심(3절)** : ‘신실함, 진실함, 거룩함, 자비’ 등의 뜻을 갖는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를 의미한다’

기도제목

①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총천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복음

4

목요일

믿음은 무엇인가? 사도는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당시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신자들조차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정도로 믿음에 관해서는 모델과 같은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3절). 사실 이 구절은 창세기의 말씀,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창 15:6)를 인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성경의 진술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본질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내용은 믿음이 구원을 얻는 것, 곧 의롭다 여김을 얻는 것의 원인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신칭의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구원의 원인을 나타내거나 근거를 제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도구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단지 도구일 뿐이지 내가 구원함을 얻는 원인은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근거합니다. 즉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죽이 되시고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구속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인이고 복음의 찬란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곧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요 8:56). 믿음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 안에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죽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롬 4:25)

He was delivered over to death for our sins and was raised to life for our justification. (Rom. 4:25)

로마서 4장
찬송가 261장

묵상노트

• 육신으로(1절) : 다른 표현 '육으로'라고 할 수도 있다. 영어로는 'to the flesh'이다. 이 말은 '영'과 반대되는 것의 모든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떠나서 인간이 지닌 죄의 본성을 따라 행동하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영생에 이르는 복음

로마서 5장
찬송가 315장

묵상노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고 또한 그것을 누리게 합니다(1절). 동시에 믿음에 서 있게 하며 놀라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하며(2절),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리로까지 가게 합니다(2절).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주어진 은혜의 자리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신앙의 내용은 동시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있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3~4절).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적으로 성취되었으며 반복되거나 다시금 옛 것으로 회귀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점철된다 하더라도 신자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승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확정적 모습을 아담의 범죄로부터 사망이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부터 참된 생명이 주어졌다고 설명합니다(12~19절). 이것은 우리가 받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견고하고 확실한가를 보여 줍니다. 복음을 통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곧 영생이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훗날 그 영생을 얻게 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생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신자의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어졌다고 가르칩니다. 바로 이것이 영생의 복음이며 영원히 누려야 할 복된 소식입니다(요 5:24).

•은사(16절) : 헬라어 '카리스마'로서 '선물, 신적 능력'의 뜻을 지니고 성경에서 각 성도들에게 주는 선물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구원을 가리킨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롬 5:21)

so that, just as sin reigned in death, so also grace might reign through righteousness to bring eternal life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Rom. 5:21)

기도제목

① 내 평생 사는 동안 오직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연합을 이루는 복음

6

토요일

기독교 신앙과 복음의 핵심적 내용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입니다. 이 두 기둥을 중심으로 복음은 복음이 되고 은혜는 은혜가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뭐 하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가? 어차피 은혜로 구원이 주어졌다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할 필요도 없고 힘을 다해 증성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누구나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1절).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고 거듭난 신자가 무엇을 목표로 구원받았는지를 잘 모르는 영적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성찬에 참여하며 교회 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신비롭게 연합된 자입니다. 신자는 이제 자기 자신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존재가 바로 신자이고(갈 2:20),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신자입니다(4절). 왜냐하면 신자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11절). 신자는 이제 죄 아래 살 수 없고, 은혜 아래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14절).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에 이루어진 놀라운 연합의 비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롬 6:14)

For sin shall not be your master, because you are not under law, but under grace. (Rom. 6:14)

로마서 6장
찬송가 600장

묵상노트

• 주강해(14절): '동치하다, 지배하다, 주인이 되다'의 뜻이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을 더욱 깊이 누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쇼핑을 멈추고
십자가를
지각



종교학자들은 현대 교회가 시장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품질 좋고 값싼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리저리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은 힘들이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이 교회, 저 교회로 다닌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을 잡으려고 교회는 그들의 구미에 맞게 십자가 없는 값싼 싸구려 은총을 팝니다. 교회 건물에는 분명 십자가가 달려 있지만, 그들의 구체적인 실제 신앙생활 속에서는 십자가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 풍조 속에서 주님은 지금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달라진다고 해도, 거기에 따라 교회가 변질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운명적으로 이 말씀을 비켜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삶은 더 이상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AW. 토저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7 주일

8 월요일

☐ 로마서 8장

9 화요일

☐ 로마서 8장

10 수요일

☐ 로마서 9장

11 목요일

☐ 로마서 10장

12 금요일

☐ 로마서 11장

13 토요일

☐ 로마서 12장

1

안타까운 선지자

Sulky Prophet

| 초점 |

나의 뜻과 계획을 버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산다

| 찬송 |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 본문 | 요나 4:1~11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온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 넉줄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던대 요나가 박넉줄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벨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 넉줄을 갈아먹게 하시매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쏘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넉줄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앓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넉줄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죄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었도 많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종이며 선지자였지만,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거절한 요나 선지자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그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지로 사역을 한 후 요나는 창조주 하나님께 분개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였지만 요나는 성이 났던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해도 그것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온 성이 회개했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축하할 일입니다.

눅 15:10

니느웨의 회개를 보며 천사들이 얼마나 크게 기뻐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신성한 성공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왜 그토록 끔찍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종이 그처럼 화가 났습니까?

※ 위임독서님의 설교(p. 22)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사랑이 없었다

요나는 모든 사람들, 특히 니느웨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 요나 4:1~3 말씀을 한 마디로 간단히 정리해 보십시오.

요나는 차별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진리의 관점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종, 국가, 배경 등에 관하여 구분 지으려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은 십자가 아래에서는 어떤 땅도 높거나 낮지 않으므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필요하며, 또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 로마서 3:10,23, 10:11~13 말씀이 일관되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악한 차별의식이 있습니다(사 49:22~23). 우리의 심령 안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십시오.

※ 아래의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해 사람들을 사랑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까?

자신의 즐거움이 더 중요했다

요나는 사람들보다 자신의 즐거움이 더 중요했습니다.

욥 4:5

요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보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그는 니느웨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왜 아직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의아했습니다(욥 3:4).

※ 요나의 문제는 무엇이며, 그를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행복에서 극한의 슬픔까지 경험한 이 성내는 선지자는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자들보다도 자신의 기쁨과 안락을 더 사랑했습니다. 슬프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요나와 같이 그릇된 일에는 굉장히 행복해하고, 옳은 일에는 매우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인지하여,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두도록 스스로를 일깨워야 합니다.

요 16:13

자신을 더 사랑했다

요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온 4:9

자기 연민의 함정은 우리 모두가 아주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걸리면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이로써 자기 연민이 부끄럽지 않은 죄가 될 때, 여러분은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음을 알게 됩니다.

요일 2:15~17

※ 기분이 상한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랑스럽게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상황이 진행될 때, 그들은 자신들이 정당하게 분개하며 화를 내도 된다고 믿게 됩니다.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은총은 요한복음 3:16 말씀에 있습니다.

※ 요한복음 3:16 말씀을 암송한 뒤,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찾아다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눈을 열어 주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볼 것을 간구하고 계십니다. 요나에 대해 생각해 보고, 기쁨과 순종의 마음 갖기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단지 여러분이 소망하거나 계획한 대로 상황들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평하며 우울한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길은 어렵고, 우리가 계획한 것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항상 천국으로 열려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나의 뜻과 계획을 버리고, 온전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 아래의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 사람들,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 자아가 구주를 다스리니까 아니면 구주께서 여러분의 자아를 다스리십니까?
-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날 이유가 있습니까?

눅 18:13

| 믿음의 기도 |

- ①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평하는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 ②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 ③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안타까운 선지자

(요나 4:1~11)

요나는 하나님의 종이며 선지자였지만,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역지로 사역을 한 후에 그는 창조주 하나님께 분개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지만 요나는 성이 났던 것입니다. 단 한명의 죄인이 회개해도, 그것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눅 15:10). 그런데 온 성이 회개했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축하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니느웨의 회개를 보며 천사들이 얼마나 크게 기뻐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신성한 성공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왜 그토록 끔찍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종이 이처럼 화가 났습니까?

사랑이 없었다

요나는 모든 사람들, 특히 니느웨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이 없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욥 4:1~3).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불평하며 반역했습니다. 니느웨는 유대에 속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을 좋아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차별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진리의 관점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 3:10). 우리는 사람들의 인종, 국가, 배경 등에 관하여 구분 지으려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십

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은, 십자가 아래에서는 어떤 땅도 높거나 낮지 않으므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필요하며, 또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이라는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생각과 심령을 단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 10:11~13).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의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그리고 교회 일꾼들이 진실로 이 진리를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악한 차별의식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못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의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사 49:22~23). 우리의 심령 안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까?

자신의 즐거움이 더 중요했다

요나는 사람들보다 자신의 즐거움이 더 중요했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욥 4:5). 요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보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그는 니느웨에 내릴 하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왜 아직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욥 3:4). 우리를 주님의 심판으로부터 막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니느웨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을 뿐 그들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는 그들이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보기 원했습니다. 주 하나님은 요나가 이러한 나쁜 태도를 가진 채로 있도록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룻밤 새 식물을 성장시켜 그늘을 제공하게 하셨으며, 또 식물을 갉아먹기 위한 벌레와 작열하는 태양열과 뜨거움이 더 강해지도록 동풍을 일으키셨습니다. 즐거움은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지 않으며, 편안함은 도시를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슬프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요나와 완전히 같아서 그릇된 일에는 굉장히 행복해하고, 옳은 일에는 매우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녕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던라 요나가 박녕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녕쿨을 갉아먹게 하시매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쏘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욥 4:6~8). 최고의 행복에서 극한의 슬픔까지 경험한 이 성내는 선지자는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자들보다도 자신의 기쁨과 안락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슬프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요나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인지하여,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두도록 스스로를 일깨워야 합니다.

자신을 더 사랑했다

요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녕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욥 4:9). 이 자기 연민의 함정은 우리 모두가 아주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걸리면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이로써 자기 연민이 부끄럽지 않은 죄가 될 때, 여러분은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음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2:15~17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랑스럽게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상황이 진행될 때 그들은 자신들이 정당하게 분개하며 화를 내도 된다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분이 상한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을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 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욥 4:10~11).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은총은 요한복음 3:16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찾아다니니까? 하나님께서는 토라진 이 선지자에게 식물의 교훈을 통하여 간청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식물에 비유한 것으로써 그는 다시 올바른 관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눈을 열어 주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볼 것을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사람들,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구세주를 다스리니까 아니면 구세주께서 여러분의 자아를 다스리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날 이유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에 대해 생각해 보고, 기쁨과 순종의 마음 갖기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단지 여러분이 소망하거나 계획한 대로 상황들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며 우울한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길은 어렵고, 종종 우리가 계획한 것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항상 천국으로 열려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모든 것은 항상 잘될 것입니다.

김성관 위임목사

죄를 이기는 복음

로마서 7장
찬송가 246장

묵상노트

죄는 타락한 죄인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하나의 법으로써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죄의 법을 깨고 새로운 통치, 즉 은혜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죄의 법이 아닌 은혜의 법 아래 들어온 자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혼인 관계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1~3절). 남편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그 남편의 굴레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죽으면 이제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자 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인간은 죄 아래 태어난 죄인입니다. 죄의 법 아래 순응하며 철저히 그것으로부터 지배를 받으며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은혜의 법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은 이제 새로운 법, 즉 은혜의 법 아래 속하게 된 것입니다.

신자가 죄를 이긴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신자 스스로 죄의 법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처럼, 신자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기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시작과 과정과 결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는 싸움은 본질적으로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확인하고 더욱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롬 7:25)

Thanks be to God--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So then, I myself in my mind am a slave to God's law, but in the sinful nature a slave to the law of sin. (Rom. 7:25)

•곤고한 사람(24절) : '비참한 사람'의 뜻을 가진다. 이 탄식은 선을 행하고자 노력하지만 항상 실패하는 인간 자신의 형편 때문에 터져 나오는 아우성이다. 결국 인간이란 그 어떠한 선도 전혀 행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인간의 절망감과 비참함을 나타내고 있다.

기도제목

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영화롭게 하는 복음

9

화요일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며 증거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 증거되는 가장 핵심된 구원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의 확실성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사도는 이 확증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2절). 신자는 이제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신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동시에 그를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15절).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부름을 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나아가 마지막 날에는 영화롭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완성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인간에게 원인이 있어 이 모든 구원의 공로들이 주어진다면 이 세상에 그것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환난이나 곤고, 박해나 기근, 적신이나 위험, 칼의 위협, 심지어 사망과 악의 세력과 권세자들이 신자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며, 그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죄인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 8:30)

And those he predestined, he also called; those he called, he also justified; those he justified, he also glorified. (Rom. 8:30)

로마서 8장
찬송가 148장

묵상노트

• **아빠(15절)** : 아람어에서 유래한 말로서 우리말 그대로 '아빠'를 의미한다. 곧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친근감 있게 부르는 호칭으로 구원받은 성도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킨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직함이 없는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신자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로마서 9장
찬송가 150장

묵상노트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 많은 의구심과 의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택한 백성이고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참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전혀 상반된,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사정과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계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나아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권적 뜻이 무엇인지를 다루고자 했습니다.

구원을 받고 아니 받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와 목적,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유한한 이성과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자 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오해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받았으며 각종 예배와 그 외의 다양한 약속들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그들은 복음에 대하여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18절). 이 말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불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따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 완악하게 하시니라(18절)
질) :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문자적 의미보다 어떤 사람의 죄악과 본성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롬 9:18)

Therefore God has mercy on whom he wants to have mercy, and he hardens whom he wants to harden. (Rom. 9:18)

기도제목

① 나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② 총현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공사 및 양로원, 함양총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의를 이루는 복음

11

목요일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지적하고 다시금 복음의 참 뜻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3절).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세우고 육신의 정당한 종교성만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인간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4절).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율법 지킴은 곧 그 자체가 자기 의를 쌓는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준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5절).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율법의 완성자이요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가 이루신 그 의를 덧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 의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결코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만을 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로만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의는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도 열려져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12절). 따라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놀라운 의가 부여지게 되는 것입니다(13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되며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는 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10장
찬송가 366장

묵상노트

• **지식(2절)** : 일반적 차이를 가리키는 ‘그노시스’와는 달라. 행명과 구원을 주는 완전한 지식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롬 10:4)

Christ is the end of the law so that there may be righteousness for everyone who believes. (Rom. 10:4)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더욱 깊이 알게 하소서. ② 출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로마서 11장
찬송가 249장

묵상노트

구원의 신비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을 단순히 육신적으로만 알고 있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결코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신비를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것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요 3장).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든지(1절), 아니면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옳지 않은 것이든지의 양 극단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인간은 모두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경륜 속에 사용하셨던 이스라엘! 바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총을 이방인을 넘어서 세상 끝까지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시어 구원의 길을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는지, 왜 원 가지(이스라엘)들은 썩어지게 하시고 새 가지(이방인)들이 양산되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분의 깊은 뜻을 결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 명의 성도들이 남겨졌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남은 자를 은혜 가운데 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2~5절). 하나님의 이 일은 분명히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 앞에 우리가 할 유일한 일은 영광 돌림과 찬양과 경배만을 드릴 뿐입니다(33~36절).

• 신비(25절) : '숨은 뜻, 비밀'의 뜻으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진리를 가리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롬 11:36)

For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to him are all things. To him be the glory forever! Amen. (Rom. 11:36)

기도서록

① 영광스런 복음의 부요함을 더욱 깊이, 풍성히, 가득히 알고 누리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을 복음의 나팔로만 사용해 주시고,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김동하 후임 담임목사님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거룩을 이루는 복음

13

토요일

신앙은 믿음의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신앙은 실제적 삶이고 내세를 소망하는 현실이며 두 세계를 살아가는 실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복음과 삶을 서로 떼어내고 성경이 제시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자기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은 복음이고 삶은 삶인 식으로 이원론적 신앙에 빠져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복음적 삶을 낳습니다. 복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복음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좋은 나무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마 7:16~19).

예수를 믿는 신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을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1절).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 인간적 노력을 강구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자신의 자질을 고치기 위해 어떤 수고를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신자의 거룩과 경건은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자의 거룩과 경건, 나아가 구원에 대한 모든 복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고전 1:30). 신자의 거룩은 우리의 실력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거룩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짐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고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거룩케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거룩과 경건의 진리입니다.

로마서 12장
찬송가 255장

묵상노트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s, holy and pleasing to God--this is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Rom. 12:1)

• **지혜롭게 생각하라(3절)** : 헬라어 '소프론네인'이다. '경건하게(소스)와 '생각함(프로네오)'의 합성어로서 '침착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거룩해질 날을 소망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②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선교는 영적 전쟁

예수님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음을 그들에게 선포했을 때 노골적으로 위협하며 반감을 드러내는 젊은이들을 보며 선교가 영적 전쟁임을 실감했다. 붓다가 자기네 신이라고 한결같이 소리 지르며 우기는 가운데에도 주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믿음을 지키는 한 가정을 만나게 하셨다. 얼마나 반가운지 우리는 만남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부둥켜 안고 서로의 믿음으로 위로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많은 사람들이 배척을 해 마음에 위축을 받았지만 실체가 없는 두려움에 먼저 떨지 않고 겁내지 않았다. 패배자 같으나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결국 승리자로 거룩한 용기를 얻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최선을 다 하셨고 당신이 구원자임에도 수많은 배척을 당하셨지 않은가? 주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한 영혼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십자가의 복음이 진실이며 사실임을 담대히 선포 또 선포해야 한다.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기쁨을 선교를 통해 누리게 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

우병희(집사, 2교구)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4 주일

15 월요일

☐ 로마서 13장

16 화요일

☐ 욥기 30장

17 수요일

☐ 욥기 31장

18 목요일

☐ 욥기 32장

19 금요일

☐ 욥기 33장

20 토요일

☐ 욥기 34장

2

풍성한 주의 은혜

More Than Abundant Grace

| 초점 |

십자가의 은혜로 풍성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산다

| 찬송 |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는데

| 본문 | 디모데전서 1:12~17

⁽¹²⁾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¹³⁾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¹⁴⁾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¹⁵⁾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¹⁶⁾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¹⁷⁾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복음이 끊임없이 희석되고 왜곡되어 세속적인 반영과 스스로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라”는 복음으로 변질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잊은 것은 물론 자신들이 참으로 그 은혜들을 입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 또한 잊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죄를 모두 덮어 죄인들을 예수님의 종들로 바꾸는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심오한 진리로부터 떠나 헤매고 있습니다.

※ 복음을 기준으로 우리의 시대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벧후 3:3 _____

딤후 1:12 _____

바울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전도자로 위임 받았으며, 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십니다. 바울에게 행하셨던 것을 예수님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모든 이를 위하여 또한 행하셨습니다. 바울의 증언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보다 훨씬 더 큰 자비와 은혜를 찾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p. 40)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그리스도의 원수였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원수였습니다.

딤후전 1:13 _____

자신이 시인한 것처럼 바울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교회에 있어 독약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절대로 참 진리를 믿거나 신뢰하지 않는 단호한 불신자였습니다.

※ 사도행전 7:58, 9:1~2, 22:3~5 말씀을 읽은 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리해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죄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바울의 삶이 우리 자신의 삶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 중심까지 극악무도하여 지옥에 가야 할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기 전까지 우리 중 아무도 우리 자신의 상황이나 필요, 그리고 지옥에서 나가는 길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딤후 1:14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무서운 죄를 용서해 주시듯, 끔찍한 죄를 범한 바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십니다.

※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간단히 이야기해 보십시오(행 9:3~6).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죄의 결과를 완화시키거나 소멸시키는 신비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자비는 바울이 끔찍한 과거를 가졌음에도 그가 주님께 의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불신앙의 무지 속에서 행동하였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바울의 삶에서 효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요 10:28~29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풍성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는 바울의 영혼을 구원하기에 충분했던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만큼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잃어버린 죄인들은 맹인이지만, 구원받은 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시켰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딤후 1:15~16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놀랍도록 풍성히 경험했습니다. 죄인 중의 괴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도 넘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바울이 변화되는 수단이었고, 이것들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위대한 결과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딤후 2:11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주님은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넘쳐흐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할 수 있으셨다면, 주님은 그 누구라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삶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언하게 하십니다.

엢 2:8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선한 교회 출석자이고, 흠도 없으며 너무나 품위 있고 자존감도 높아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만이 홀로 존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바울의 증언을 닮은 증언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기에 예수님께서 나아가야 합니다.

딤후 1:17 _____

※ 아래의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 자신의 죄인 됨을 인식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겸손과 감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 바울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차오릅니까?

| 믿음의 기도 |

- 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믿게 하소서.
- ②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하게 하소서.
- ③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 넘치는 구역(팀)이 되게 하소서.

풍성한 주의 은혜

(디모데전서 1:12~17)

오늘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울의 개인적인 증언입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복음을 기술하고 있기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증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끊임없이 희석되고 왜곡되어 세속적인 '변영'과 스스로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라"는 복음으로 변질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확실히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잊은 것은 물론 자신들이 참으로 그 은혜들을 입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죄를 모두 덮어 죄인들을 예수의 종들로 바꾸는,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심오한 진리로부터 떠나 헤매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전도자로 위임 받았으며, 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능하게 하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딤후 1:12). 바울에게 행하셨던 것을 예수님은 저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모든 이를 위하여 또한 행하셨습니다. 바울의 증언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보다 훨씬 더 큰 자비와 은혜를 찾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의 원수였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원수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딤후 1:13). 자신이 시인한 것처럼 바울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교회에 있어 독약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절대로 참 진리를 믿거나 신뢰하지 않는 단호한 불신자였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기독교 운동을 파괴하기 시작했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노력을 지지하며 칭찬하였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

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행 9:1~2). 그는 유대의 전통과 교육을 대단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행 22:3~5). 경건했지만 그는 자신의 죄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스테반의 죽음에도 책임이 있었습니다(행 7:58). 더욱 안타까운 것은 바울의 삶이 우리 자신의 삶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 중심까지 극악무도하여 지옥에 가야 할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기 전까지 우리 중 아무도 우리 자신의 상황이나 필요, 그리고 지옥에서 나가는 길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딤후 1:14).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무서운 죄를 용서해 주시듯, 끔찍한 죄를 범한 바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십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행 9:3~6). 예수님은 바울에게 자비를 베푸심에 있어 먼저 행동하셨습니다. 바울은 자비를 구하지 않았으나, 자비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비를 받을 가치가 없었지만, 결국 자비는 그에게 베풀어졌습니다. 바울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어떤 사람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이신 자비는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요 10:28~29).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 죄의 결과를 완화시키거나 소멸시키는 신비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자비는 바울이 끔찍한 과거를 가졌음에도 그가 주님께 의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불신앙의 무지 속에서 행동하였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바울의 삶에서 효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풍성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는 바울의 영혼을 구원하기에 충분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만큼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잃어버린 죄인들은 맹인이지만, 구원받은 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바울과 같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자신의 경험에 관하여 확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시켰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

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딤후 1:15~16). 이것이 성도의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를 다루시는 장소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 그분의 자비가 죄인들을 실제로 변화시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놀랍도록 풍성히 경험했습니다. 죄인 중의 괴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도 넘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바울이 변화되는 수단이었고, 이것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두 위대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을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넘쳐흐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할 수 있으셨다면, 주님은 그 누구라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을 것이며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삶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선한 교회 출석자이고, 흠도 없으며 너무나 품위 있고 자존감도 높아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작 자기의 심령에 죄가 가득함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자신이 죄인 중의 괴수임을 알았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드린 깊은 감사가 그들에게는 부족합니다. 인간의 가

치를 과장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무 경시한 나머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도록 하지 마십시오.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뜨거운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깊은 타락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깨달은 데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음속에 숨은 타락을 더욱더 알게 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겸손과 감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풍성한 은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 주셨던 일을 생각했을 때, 그에겐 예배와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딤후 1:17). 주목할 것은 이 말씀에서 바울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그분을 우리와 분리시키는 것이지, 바울이 줄곧 언급해 온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가까이 이끌어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는 완전히 떨어져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분명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기묘하고도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자격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셨음에 놀라워하며 찬양함으로 경배하는 것뿐입니다. 바울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차오릅니까? 만일 그랬던 적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경험을 기억할 만큼 충분히 그 안에 오래 머물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를 발견하시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님께서 그에게 해 주신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그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그는 경배와 찬양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신 곳,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일과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는 일, 또 우리를 데려가실 곳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향해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존귀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바울의 증언을 닮은 증언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기에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특별한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며,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 시간이 끝날 것이기에 바로 지금이 구원을 위한 때입니다. 주 예수님은 확실히 우리에게 선하셨으며 은혜로우셨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봉사, 영광, 그리고 찬양의 삶 속에서 그러한 증언의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김성관 위임목사

사랑을 이루는 복음

로마서 13장
찬송가 435장

묵상노트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국가와 권세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1~7절). 둘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랑의 의미, 복음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날마다 빛의 자녀로 사는 삶에 대해 진술하고 있습니다(8~14절).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결국 하나로 연결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사랑함으로 가능하게 됩니다(10절).

세상은 권세를 얻고 그 권력을 행사합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을 안겨주거나 또는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것이 사람이든 집단이든 가차 없이 처단하고 제거해 버립니다. 이것이 이 세상 권세의 방식이고 타락한 인간 삶의 궁극적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정치적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계 맺지 않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단지 사랑함으로 나아갈 뿐입니다(1,8,10절). 세상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신자로서 마땅히 할 믿음의 도리를 실천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세속적 권력이나 육적인 욕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수째 맡기는 믿음의 자세와 태도로 초연하게 일관합니다. 그리고 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한 날의 삶에 만족하며 믿음의 길을 걸읍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근심이요 걱정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빛을 진 자의 마음일 것입니다(8절).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성취한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신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십자가 사랑의 풍성함을 드러내며, 육신의 일이 아닌 그리스도의 빛의 감움을 입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시기(11절) : '결정적이며 긴박한 시간'을 가리킨다. 즉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준비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롬 13:8)

Let no debt remain outstanding, except the continuing debt to love one another, for he who loves his fellowman has fulfilled the law. (Rom. 13:8)

기도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고난과 불명예 가운데서

16

화요일

과거에 누렸던 욥의 영화는 사라지고 이제 욥은 자신들보다 젊은 자들에게 조롱당하고 놀림거리가 되었고 미움을 받았습니다(1~8절). 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이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다고 말합니다(9~15절).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그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16~19절).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도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자신을 대적하여 죽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20~23절). 복과 광명을 바랐으나 화와 흑암이 찾아왔고, 버림받아 울부짖는 이리와 타조처럼 되었습니다. 욥은 그의 삶에는 아픔과 슬픔만이 남았음을 한탄합니다(24~31절).

과거의 모든 영화가 사라지고 심지어 무가치하고 미련한 자들에게 조롱을 받는 상황에 처해진 욥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기 마련입니다. 그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상황을 늘 지켜보고 인도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찾아온 죽음이라는 인생의 가장 비참한 상황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며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욥기 30장
찬송가 607장

묵상노트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욥 30:24)

Surely no one lays a hand on a broken man when he cries for help in his distress. (Job. 30:24)

• 이리의 형제, 타조의 벗 (29절) :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해 마치 침울처럼 버림받아 울부짖는 처지를 말한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잘못 없음을 증명하기보다

욥기 31장
찬송가 519장

묵상노트

자신이 처녀에게 주박하지도 않았고 또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속임수에 빠르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는 욥은 만약 하나님께서 공평한 저울에 달아서 자신의 잘못이 나타난다면 심판을 당하겠노라고 단언합니다(1~8절). 자신이 음행을 저질렀다면 자신의 아내가 남의 소유가 되고 자신은 재판에 회부되며 모든 소유는 불에 탈 것이라고 말합니다(9~12절). 그는 자신의 종들의 권리도 인정했고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먹이고 도왔으며 그들을 압제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13~23절). 또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않았고 해와 달에게 미혹되지도 않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임을 안다고 주장합니다(24~28절). 욥은 원수들의 멸망을 기뻐하거나 저주하지도 않았고 손님을 바로 대접했으며 악행이나 죄악을 숨기지도 않았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섰습니다(29~34절). 욥은 자신의 이런 결백을 주장하고 거짓이 있다면 자기 발에 저주가 내려져도 좋다고 선언합니다(35~40절).

욥은 자신의 인생에서 잘못을 범했거나 죄를 범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욥 스스로가 고민하는 것처럼 고난은 어떤 악행의 대가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사람들이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평탄하고 복을 받는 길이 아니라 거칠고 험한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고난의 원인을 찾고 자신의 잘못없음을 증명하기보다는 이러한 삶을 주신 주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 앞에 놓인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 멸망하도록 시르는 불(12절)
절: 의도적인 성적인 범죄는 죽음 이상의 파멸로 이끄는 죄악임을 강조한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욥 31:4)
Does he not see my ways and count my every step?(Job. 31:4)

기도제목

① 고난과 역경 앞에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에 감사하게 하소서. ②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엘리후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잠잠했지만 욥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는 것과 세 친구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화를 냅니다(1~5절). 그는 나이가 많고 연륜이 많은 자가 말하고 지혜를 가르칠 것이지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전능자이시며, 어른이라고 다 깨닫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겠다고 합니다(6~10절). 그는 욥의 세 친구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도 욥을 이기지 못했으며 단순히 그를 하나님의 판단에만 맡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이런 의견을 세 친구와는 다른 방법으로 말하겠다고 합니다(11~14절). 세 친구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 엘리후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말이 가득하여 봉한 포도주 통이나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처럼 되었기 때문입니다(15~22절).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을 듣고만 있던 엘리후는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말함에도 욥의 세 친구들이 반박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이 자기를 의롭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그를 고난 가운데로 이끌었다고 하는데도 욥의 세 친구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자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자신들의 자존심이나 인격을 공격 받으면 발끈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전혀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보다 자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격이나 자존심을 버리고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구원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열정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욥 32:21)

I will show partiality to no one, nor will I flatter any man;(Job. 32:21)

•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19절): 발효된 포도주로 터질 것 같은 새 가죽 부대처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엘리후의 모습을 말한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 ① 나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 ②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욥기 33장

찬송가 205장

묵상노트

엘리후는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욥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동등하게 변론하자고 합니다(1~7절). 엘리후는 욥이 자신이 순전하고 불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원수처럼 여기신다는 생각은 의롭지 못하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8~12절).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으로 경고하시며 악한 행실과 교만을 버리게 하고 그 영혼이 멸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신다고 주장합니다(13~18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그들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는 것이며, 욥에게 자신의 말을 듣고 대답하되 그렇지 않으면 자신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말합니다(19~33절).

엘리후는 욥이 무죄한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하는 것을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할 수는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또 고통과 징고로 경고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도 대답하지 않으셔서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들은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대답을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꿈이나 환상을 보여 주셨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모두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 구덩이, 멸하는 재(22절)
: 죽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음부의 권세를 말한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욥 33:26)

He prays to God and finds favor with him, he sees God's face and shouts for joy; he is restored by God to his righteous state. (Job. 33:26)

기도제목

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엘리후는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지를 분별하자고 합니다. 그는 욥이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악인과 함께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익하다고 말하지만(1~9절),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공의를 굽히지 않으시며(10~15절), 의롭고 전능하셔서 고관과 부자의 외모로 대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16~20절). 또한 하나님은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신데 이것은 경건하지 못한 자가 백성을 옴아 매지 못하게 하심이라고 주장합니다(21~30절). 그리고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행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31~33절), 욥이 악인과 같이 대답하고 자신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비난합니다(34~37절).

엘리후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공의를 굽히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엘리후의 생각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는 분이시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이끌어 가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 그리고 공의의 범주를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셔야 한다는 자신만의 모양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상을 벗어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여기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한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욥기 34장

찬송가 434장

묵상노트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욥 34:12)
It is unthinkable that God would do wrong, that the Almighty would pervert justice.(Job. 34:12)

• 속전을 치르시겠느냐(33절) :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여 욥의 생각에 따라가셔야 하겠느냐는 의미이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내 생각과 방법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②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성경의 언약②

언약(Covenant)이란 문자 그대로 두 주체가 쌍방 간에 맺은 약속이다. 단,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일방적이며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을 말한다. 성경의 여러 언약들은 표면적으로는 시대와 인물에 따라 각각 다양하고 단편적인 것 같지만,

명 칭	제결자	내 용
소금 언약 (민 18:19)	제사장 아론과 그의 후손	하나님께 드려진 거제로서 성물을 제사장들에게 음식으로 주리라
제사장 언약 (민 25:10~31)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로써 불의를 척결한 비느하스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수행케 하리라
다윗 언약 (삼하 7:5~16)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다윗	다윗 왕의 왕위를 영원히 그의 후손에게 잇게 하리라
새 언약 (렘 31:31~34)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쫓겨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보혈 언약 (마 26:26~29)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성도들의 죄는 모두 씻음 받으리라 (히 8:10~13)
보혜사 언약 (요 14:16)	성령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재림 언약 (요 14:2~3 ; 행 1:11)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는 모든 성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리라

그 근본 목적과 본질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한 인간 구속의 언약이다. 따라서 성경의 언약을 한 자리에 모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죄인 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각 시대에, 그리고 전 시대에 걸쳐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서로 연속성과 동질성을 갖고 있는 언약은 크게 보면 인간 타락 이전의 행위 언약과 이후의 은혜 언약으로 구분된다. 은혜 언약은 다시 예수님이 인간 구속을 위한 희생 사역을 위해 초림하실 것을 약속한 옛 언약, 곧 구약(Old Testament)과 초림 후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구속을 최종 실현하시기 위해서, 즉 천국을 최종 도래시키기 위하여 새로 주신 새 언약, 곧 신약(New Testament)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의 미	특 징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성도(벧전 2:9)에게 생명의 양식(요 6:32~51)이 되심을 암시	• 소금은 부패, 변질을 방지함. 따라서 이 언약은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임을 암시(왕하 2:19~22) • 편무 언약
당신을 열심으로 섬기는 자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실 것에 대한 역사적 실례	• '평화의 언약'(민 25:12)으로도 불림 • 신앙의 열심을 촉구하는 언약 • 편무 언약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육신적인 후손으로 영원히 왕 노릇하실 것임을 암시	• 메시아(그리스도)의 통치 암시 • 편무 언약
성도의 허물을 씻기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서 장차 그리스도가 와서 맺을 보혈 언약을 예표(마 26:28)	• 새 언약, 곧 신약이란 말이 성경 최초로 나타남 •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 • 편무 언약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그와 함께 죽고 사는 '그리스도의 할례'(골 2:11)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성령 내주로써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됨(요 16:13)	• 구약에 예언됨(렘 31:31~34) • 그리스도께서 보증과 중보가 되심(히 7:22 ; 8:6) •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짐(마 26:28) • 시간상 영원함(히 13:20) • 편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성령님을 보내시사 심령 가운데 내재케 하시고, 나아가 그들 위에 임재케 하심으로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음을 의미	•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심(행 2:1~4:33) •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히 성도와 함께 하심(요 14:16~17) • 편무 언약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재림하시어 사탄을 멸하시고 성도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의미(마 25:41 ; 계 19:11~16)	•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도들은 선행, 충성에 따라 상벌 받음(고후 5:10) • 주님의 재림의 때는 하나님의 권세 하에 있음 • 편무 언약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1 주일

22 월요일 ☐ 읽기 35장23 화요일 ☐ 읽기 36장24 수요일 ☐ 읽기 37장25 목요일 ☐ 읽기 38장26 금요일 ☐ 읽기 39장27 토요일 ☐ 읽기 40장

3

우리는 누구인가?

Who Are We?

| 초점 |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 찬송 |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 본문 | 요한일서 1:7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함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것은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산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입니까? 또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나는 누구인가?’ 각각 자신을 소개해 보십시오.

역사학자, 과학자, 심리학자, 범죄학자, 설교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은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성경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 내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p. 60)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창 1:27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흙의 작은 입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창 2:7).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최고의 작품입니다.

※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작품이라는 사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본성과 도덕성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습니다.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창조될 때 죄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처럼 그들은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완벽한 환경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창 1:31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다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죄 때문에 훼손되었습니다.

※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선악과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 보십시오(창 2~3장).

롬 5:12 _____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슬픈 일입니다. 죄는 어디에나 만연되어 있습니다. 매스컴에는 날마다 살인, 강도, 전쟁 등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탐욕과 질투, 자만심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규칙, 법규, 교육을 통해 상황을 개선해 보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억압과 응징 체제는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노력마저 쇠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죄와의 전쟁에 대한 인간의 모든 노력은 실패했습니다.

※ 로마서 3:10~23 말씀을 자세히 읽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나누어 보십시오.

벧전 2:1~2 _____

십자가의 은혜는 훼손된 형상을 회복시킨다

십자가의 은혜는 훼손된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킵니다.

롬 5:18~19

아담의 불순종은 우리를 죄악의 세계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를 거룩한 천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고 은혜의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엡 1:7

롬 1:4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히 7:25

고전 6:19~20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며,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 능력을 부어 주실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의 답을 이 땅의 가치에서 찾는다면 혼란스러워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때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게 되며,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일 1:3~4 _____

요일 5:2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십자가의 은총으로 용서받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 ②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소서.
- ③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는 누구인가?

(요한일서 1:7)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인간은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산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입니까? 또 인간에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역사가, 과학자, 심리학자, 범죄학자, 설교자 등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기쁜 소식은 성경 속에 그 해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를 어둠 속에 내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흙의 작은 입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창 2:7). 인간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창 1:26). 사람은 본성과 도덕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닮게 창조되었습니다.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창조될 때 죄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처럼 그들은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완벽한 환경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다

성경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 2:16~17). 에덴동산에는 유일하게 금지된 한 나무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불순종하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경배와 찬양,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을 때 그러한 삶은 깨져버렸습니다. 금단의 열매는 너무나 매혹적이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창 3:6). 이러한 상황을 통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각하셨습니까?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슬픈 일입니다. 로마서 3:10~23은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5:12은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는 어디에나 만연되어 있습니다. 일간지에는 날마다 살인, 강도, 전쟁 등 죄인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실립니다. 탐욕과 질투, 자만심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규제, 법규, 교육을 통해 상황을 개선해 보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억압과 응징 체제는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노력마저 쇠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죄와의 전쟁에 대한 인간의 모든 노력은 실패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훼손된 영상을 회복시킨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롬 5:18~19). 아담의 불순종은 우리를 죄악의 세계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를 거룩한 천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를 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키시고 은혜의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엡 1:7).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살아 계셔서 우리를 지켜 주고 계신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롬 1:4).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히 7:25).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에게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19~20).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자신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자신의 자존심을 던져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오늘의 질문에서 이 땅의 가치를 찾는다면 혼란스러워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거듭난 것과 자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 능력을 부어 주실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을 바라보며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넘칠 때 여러분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요일 1:3~4). 아멘.

김성관 위임목사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음기 35장

찬송가 505장

묵상노트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아무 소용 없고 범죄하지 않는 것이 무슨 유익이냐고 하지만, 욥의 범죄가 하나님께 영향이 없으며, 욥의 의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욥의 악이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다고 주장합니다(1~8절). 그리고 사람들이 학대 받고 힘에 눌려 소리치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고, 지혜롭게 만드실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악인이 교만으로 부르짖어도 헛된 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주장하며, 욥이 범죄하였음에도 오히려 그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살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욥이 계속 헛된 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9~16절).

엘리후는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욥이 범죄하였거나 또는 의롭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의를 굽히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의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을 더 높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영화로우시고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사람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더하게 하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다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높으심을 찬양하며 경배할 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미 6:6)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10절) :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시련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신다는 의미이다.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시니라(욥 35:13)

Indeed, God does not listen to their empty plea; the Almighty pays no attention to it. (Job. 35:13)

기도제목

- ①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게 하소서.
- ② 출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23

화요일

엘리후 욥에게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니고 온전한 지식이므로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요구합니다(1~4절).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악인을 벌하시고 고난 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의인을 지키시고 존귀하게 하시며 사람들의 소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교훈을 듣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면 형통할 것이고 불순종하면 망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5~12절).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구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욥을 환난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말합니다(13~16절).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고 찬송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람이 알 수 없고 모든 자연의 이치가 하나님의 섭리에 있기 때문입니다(17~33절).

엘리후는 악인을 벌하시고 고난 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욥에게 권면합니다. 엘리후는 의인이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이 스스로의 행위를 알게 되어서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며, 욥 역시 자신의 죄악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돌아오면 구원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들이 걷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촉구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지금까지 모든 인생을 향해 펼쳐져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져 있는 죄악의 길을 걷는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환난은 세상에서 잘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던 걸음을 멈추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욥 36:24)

Remember to extol his work, which men have praised in song. (Job. 36:24)

욥기 36장

찬송가 151장

묵상노트

• 먼 데서 지식을 얻고(3절) : 자신의 지식은 인간 의 선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진 것이라는 표현이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돌이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공사 및 양로원, 함양충원동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

요기 37장

찬송가 79장

묵상노트

하나님이 자연 만물로 보여 주시는 놀라운 섭리를 엘리후는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사람에게 그 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시고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공해를 위하여 자연에 섭리하신다고 말합니다(1~13절). 그는 욥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고 권면합니다. 또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구름의 번개와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과 남풍으로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알며 하나님을 도와 구름장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께 감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14~20절). 맑은 하늘에서의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위엄이 있고 권능이 크시며 정의와 공의를 굽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을 무시하신다고 단언합니다(21~24절).

엘리후는 온 천하 만물에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행사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교만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천체의 움직임과 자연의 조화와 그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조 세계에 불과한 우주와 만물만으로도 인간은 스스로 부족하다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합니다. 교만하며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겸손히 주님만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 **묵상(22절)** : 구약 성경에서 북쪽은 하나님의 거처로 간주되기도 한다(겔 14 : 시 1413 : 시 482)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욥 37:5)

God's voice thunders in marvelous ways; he does great things beyond our understanding. (Job. 37:5)

기도제목

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소서. ② **총천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25

목요일

여호와께서 욥에게 땅의 기초를 놓고 도량법을 정하고 주추를 세우고 모퉁이 돌을 놓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물으십니다(1~7절). 바다가 모테에서 터져 나오고 높은 파도를 그치게 한 이가 누구며(8~11절), 아침과 새벽을 주관하시고 악인에게 그 빛을 차단하고 팔을 꺾으신 분이 누구냐고 말씀하십니다(12~15절). 또 욥에게 바다의 샘과 깊은 물과 사망의 분수를 보았는지, 땅의 너비를 측량할 수 있는지 물으십니다(16~18절). 그리고 누구도 광명으로 난 길과 흑암으로 난 길을 알 수 없으며, 눈 곳간과 우박 창고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19~24절).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욥은 하늘의 별자리와 별들의 궤도와 그 법칙을 땅에 풀 수 없으며(25~33절), 구름의 수를 세지 못하고 물과 번개를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34~38절), 사자와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마련하신 분이 누구냐고 물으십니다(39~41절).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의 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온 천하를 만들고 그것을 운행하며 자연 만물에 생명을 주고 돌보시는 분이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욥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질문에 하나님이 아닌 과학으로, 어떤 이는 다른 신화와 이야기로 대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온 천하를 만드시고 생명을 조성하시고 지금까지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욕심 내지 말고 세밀한 것까지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욥기 38장
찬송가 552장

묵상노트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욥 38:4)
Where were you when I laid the earth's foundation? Tell me, if you understand. (Job 38:4)

•하나님의 아들들(7절) : 천사들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이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주님만 믿고 따르게 하소서. ② 십자가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욥기 39장

찬송가 168장

묵상노트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와 암시슴이 어떤 이치로 새끼를 낳고 자라는지 아느냐고 물으십니다(1~4절). 들나귀를 초장에 푸시고 나귀 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 다니며 푸른 풀을 찾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욥에게 들소를 길들이며 복종하게 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들소의 힘이 세다고 해도 그것에 의탁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5~12절). 타조에게 총명을 주지 않으셔서 제 새끼를 모질게 대하지만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말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13~18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에게 힘을 주고 메뚜기처럼 뛰게 한 것이 욥이냐고 물으시고, 군사들을 맞이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으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않고 지휘관들의 호령을 듣게 한 것은 하나님임을 말씀하십니다(19~25절). 또 매가 남쪽으로 날고 독수리가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욥의 명령이냐고 물으십니다(26~30절).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예로 들어 그것들의 본능과 생태를 주장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며, 욥은 그 어떤 것에도 관여하지도 관여할 수도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동물들에게까지 섭리하셔서 각각의 피조물들에게 맞는 생태와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인간의 힘은 조금도 필요치 않았습시다. 사람보다 하등하다고 여기는 동물들의 생태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간이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동물들 하나하나까지 관심을 가지고 일하신다면, 손으로 직접 지으신 사람에게 대한 관심은 더욱 크고 높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 각자에게 각각의 생활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믿고, 늘 돌보아 주시는 주님만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 들소(9절) : 원시 소, 강한 힘을 가졌고 큰 뿔을 가진 위험한 동물이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욥 39:26)

Does the hawk take flight by your wisdom and spread his wings toward the south?(Job. 39:26)

기도제목

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하나님만 의지하라

27

토요일

여호와께서 욥에게 대답을 요구하시자 욥은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1~5절). 그 때 여호와께서 욥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악하다 하며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고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는지 대답하라고 하십니다(6~9절). 또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를 입고 교만한 자를 낮추고 악인을 짓밟으라고 하시며, 그리하면 욥이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음을 인정하겠다고 하십니다(10~14절). 하나님께서는 소처럼 풀을 먹는 베헌못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것의 힘과 꼬리 치는 것과 넓적다리 힘줄과 뼈는 크고 강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며, 산은 그것을 위해 먹을 것을 내며, 소용돌이 치는 강물에도 태연하여서 그 누구도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능히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15~24절).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강화를 마치고 욥에게 대답을 요구하자 욥은 자신은 비천해서 대답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욥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수긍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무익한 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베헌못이라는 강력한 동물의 예를 들어서 욥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으며,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모든 문제를 맡겨야 함을 알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에게 다가온 문제와 상황 앞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하며, 그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상황을 맡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람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답임을 믿고 십자가만 붙들어야 합니다.

욥기 40장
찬송가 543장

묵상노트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욥 40:9)

Do you have an arm like God's, and can your voice thunder like his?(Job. 40:9)

• 베헌못(15절) : 염쟁나개 큰 짐승. 여기서는 하마로 볼 수도 있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한 대답임을 믿게 하소서. ② 패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간 혈루증 여인

(마 9:20~22 ; 막 5:25~34 ; 눅 8:43~48)

혈루증이라는 병에 걸린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하지만 병은 고쳐지지도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가난해진다. 나도 이 모습과 같이 나의 이기심, 욕심, 질투, 거만 같은 나쁜 모습들을 내 힘으로 바꾸려고 했으나 고쳐지지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혈루증 여인의 병은 곧 나의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육체적 장애와 영적 장애는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장애라 할 수 있겠다. 여인은 주님이 계신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여인은 당장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더 이상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여인은 그 절박함에 주님을 만나러 갔고 거기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 병 고침을 받았다.

나는 나의 마음속 문제점, 즉 영적 장애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나를 항상 기다리고 계신 주님께 나의 문제점을 내려놓고 매달리지 않았다. 심지어 항상 주님이 곁에 계셔서 언제나 나의 문제점을 깨달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회개할 수 있는 여건도 있는데 말이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절박함'이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의 영은 영영 낮지 못할 것이라는 그 절박함. 이 절박함이 필요하려면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한다. 나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이은미(고등부)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8 주일

29 월요일

☐ 음기 41장

30 화요일

☐ 음기 42장

1 수요일

☐ 시편 1편

2 목요일

☐ 시편 2편

3 금요일

☐ 시편 3편

4 토요일

☐ 시편 4편

4

두 번째 부르심

The Second Time

| 초점 |

성령께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라

| 찬송 |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 본문 | 요나 3:1~4

⁽¹⁾여호와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²⁾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³⁾요나가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⁴⁾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 시대에 니느웨는 악한 백성이 사는 매우 큰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읍에 40일 후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시고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그렇게 하기를 꺼려했습니다(욥 1:1~3).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욥 1:3 _____

욥 2:6 _____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던 요나는 놀라운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욥 2:10). 이 죽음과 삶을 경험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내려졌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p. 78)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실패와 징계 후에 부르셨다

요나를 향한 두 번째 부르심은 그의 실패와 하나님의 징계 이후에 임했습니다.

욥 3:1

요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강한 자부심이 큰 실수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집 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징계가 따릅니다. 징계는 결코 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히 12:5~6, 10~11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 생활과 삼손이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보낸 시간은 실패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징계의 과정이었습니다.

※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마 26:69~75)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첫 번째와 동일한 부르심이었다

요나를 향한 두 번째 부르심은 첫 번째와 동일했습니다.

욥 3:2 _____

※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은 요나의 심정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해변에서 눈을 뜨자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요나를 부르시며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나의 사역에 대해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요나도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최근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는 무엇이었으며,
이에 대한 나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매번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이자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주저하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시 51:1,17 _____

실패할지라도 부르셨다

요나를 향한 두 번째 부르심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임했습니다.

온 3:3~5 _____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한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고, 요나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설교가 성공한 것에 대해 실망했습니다.

온 4:1,3 _____

오늘날에도 많은 주의 일꾼들이 요나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성공과 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매일 실패하게 될지라도 말입니다.

사 54:8 _____

※ 계속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요나를 부르셨던 하나님은 우리도 부르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와 그에 대한 믿음의 실천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도록 내어 맡기 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의 악한 본성이 그를 이기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매 순간 성령께 나의 전부를 내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딤후 1:14

엡 2:22

| 믿음의 기도 |

- ①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순종만 있게 하소서.
- ② 성령의 이끄심에 나의 전부를 내어 드리는 믿음을 주소서.
- ③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부르심

(요나 3:1~4)

요나 시대에 니느웨는 악한 백성이 사는 매우 큰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읍에 40일 후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시고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그렇게 하기를 꺼렸습니다(욥 1:1~3).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삼 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욥 1:17).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일을 통해 죽음을 경험하였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 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욥 2:6). 그는 또한 놀라운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욥 2:10). 죽음과 삶을 경험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내려졌습니다. “여호와 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와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욥 3:1~4).

실패와 징계 후에 부르셨다

요나를 향한 두 번째 부르심은 그의 실패와 하나님의 징계 이후에 임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강한 자부심이 큰 실수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니느웨 사람들의 잘잘못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를 따르는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집 센 하나님의 자녀들에

계는 언제나 징계가 따릅니다. 징계는 결코 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히 12:5~6, 10~11).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 생활과 삼손이 감옥에서 멧돌을 돌리며 보낸 시간은 실패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징계의 과정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에게 주님의 양을 돌보라고 부르셨습니다(요 21:15~17).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모든 사람은 실패하고 실수하며 기회를 놓칩니다.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와 동일한 부르심이었다

요나를 향한 두 번째 부르심은 첫 번째와 동일했습니다. 그의 옛 임무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욥 3:2). 그를 향한 두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증거입니다. 요나에게 이 임무는 반드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큰 물고기에게서 건지셨을 때 그가 느꼈을 경이로움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삼 일 동안의 어둠, 고통, 기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울부짖음 이후에 갑자기 구원을 받았다면 누구든지 햇빛이 눈이 부실 만큼 찬란하게 보이고 바닷바람이 너무나 감미롭게 느껴지며 따스한 해변가 모래가 정겹

게 느껴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요나의 경우는 이와 달랐습니다. 해변에서 눈을 뜨자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요나를 부르시며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구원이 아니라 사역에 대해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요나도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은 행복을 얻는 놀라운 기회이자 위대한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항상 주저하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시편 51:1~17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실패할지라도 부르셨다

요나를 향한 두 번째 부르심은 그가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그에게 임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한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고, 요나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설교가 성공한 것에 대해 실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성읍 전체가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실 때문에 전도자가 입을 베풀인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왜 요나는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있게 선포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을 구원하시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니느웨의 구원이 아니라 멸망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니스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시자 요나는 실망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졸지에 요나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설교자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성공과 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설교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연약하고 내일 실패하게 될지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결코 따르기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강림절을 축하하며,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을 굳게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도록 내어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하는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의 악한 본성이 그를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정당한 기쁨을 누리는 대신 그는 그릇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의 부당한 분노는 그를 또 다른 징계에 따른 교훈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여러분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아멘.

김성관 위임목사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욥기 41장
찬송가 68장

묵상노트

하나님께서 욥에게 리워야단을 잡을 수 있으며 그것과 계약을 맺고 중으로 삼고 새를 가지고 놀 듯 하며 여종들을 위해 매어두며 장사꾼들과 거래하며 나누어 가지겠느냐고 물으십니다(1~6절). 또 손을 그것에게 얹어 보면 창이나 작살로 찌를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며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게 되고 그 누구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도 못하면서 누가 감히 천하에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항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7~11절). 누가 리워야단의 가족을 벗기고 재갈을 물리고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며, 그것의 살껍질은 탄탄하며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여서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고 칼이나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소용없다고 말씀하십니다(12~30절). 그리고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며,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고,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31~34절).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이라는 크고 무서운 짐승을 예로 들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위대하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리워야단과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강하십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피조물의 오만함을 오직 하나님만이 꺾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힘과 권세를 가졌다고 자랑하는 교만한 자들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힘과 권세가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 천하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힘을 나타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 되심 앞에 굴복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 리워야단(1절) : 보통 뱀이나 용을 뜻한다. 여기서는 악어로 볼 수도 있다.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욥 41:1)

Can you pull in the leviathan with a fishhook or tie down his tongue with a rope?(Job. 41:1)

기도제목

- 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

30

화요일

이제야 욥은 자신이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말을 하였다 고 고백하고, 자신이 듣겠사오니 알게 해 달라고 말하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1~6절). 여호와께서는 엘리바스와 두 친구들에게 그들의 말이 욥의 말처럼 옳지 못하다고 하시며 변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욥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7~9절).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는 욥의 곤경을 돌아보시고 이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고,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으며,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게 하셨는데 세 딸 역시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받았고, 욥은 백 사십 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사 대를 보고 죽었습니다(10~17절).

욥은 마침내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깨닫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욥은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지만 지금은 눈으로 본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의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된 욥에게 더 이상 자신에게 닥친 환난에 대한 변론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알지 못하고 무지하게 말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세상에서 악인들이 오히려 잘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으며,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욥기 42장

찬송가 304장

묵상노트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욥 42:5)
My ears had heard of you but now my eyes have seen you. (Job. 42:5)

• 티끌과 재(6절) : 철저히 고 완전한 회개의 표시
고대 근동에서는 슬픔과 비하를 나타내기 위하여 먼지와 재를 뒤집어쓰는 전통적인 습관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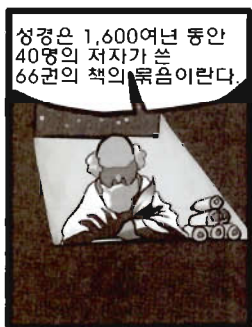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성경이란 무엇인가?

글 · 임동현 / 그림 · 김현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에 오셨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것과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설립되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기록했지.



신약도 5개의 주제로 나뉘어져 있다.



비록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 중에서만 구원 받는다 사실을 알려줘.



오직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는 줄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책이라 이거지.



우리 이 책에 대해 더 알아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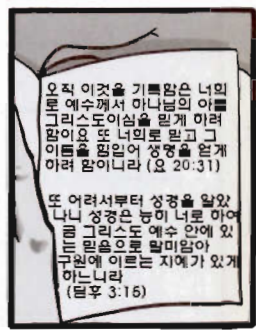
응..네.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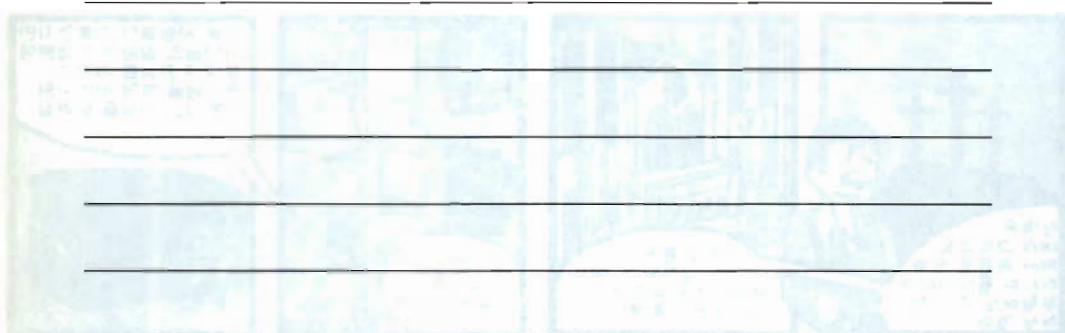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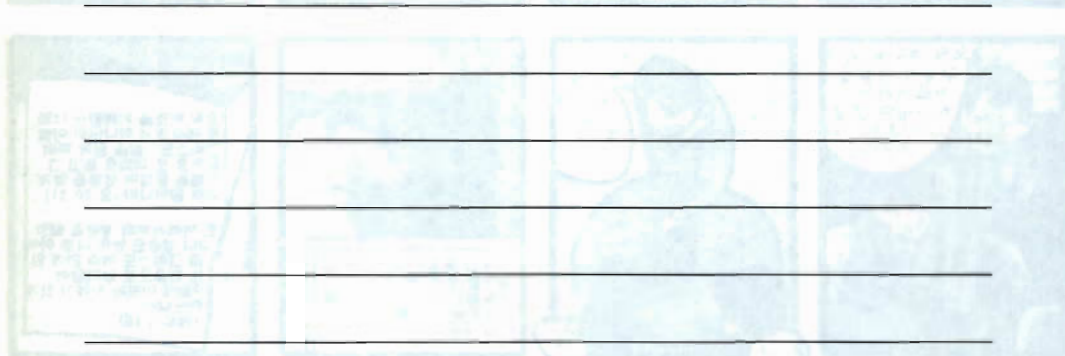
성경은 자기계발서나 성공 지침서가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오 재밌는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데 필요한 것들이 가득한 것이 특이점! 안에서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영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골 3:16)





충현의 만나 2013. 4. 별책 부록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3과 그리스도를 위한 삶

골로새서 3:1~4

4과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선물

사도행전 1:4~5

〈충현의 만나 4월호〉

구역예배/대학청년부 GBS 3·4과 별책 부록 이용 안내

그동안 김성관 목사님은 〈충현의 만나〉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교재 제작을 위해 3~4개월 전에 주일설교 원고를 주셨습니다. 이에 김성관 목사님은 은퇴 전인 4월 7,14일 주일설교 원고는 미리 주셨지만, 이번 〈충현의 만나 4월호〉를 제작하는 시기(3월)와 후임 김동하 목사님의 부임 시기가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김성관 목사님의 예전 설교 원고를 발췌하여 〈충현의 만나 4월호〉를 발간하게 되었으나, 이제 김동하 목사님께서 주일설교 원고를 주셨기에 김성관 목사님의 은퇴(4월 19일)와 김동하 목사님의 부임 시기에 맞추어 충현의 만나 4월호 교재 중 3·4과를 새로 집필하여 별책 부록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충현의 만나 4월호〉에 있는 3·4과 대신에, 이 별책 부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주일

22 월요일

☐ 읽기 35장

23 화요일

☐ 읽기 36장

24 수요일

☐ 읽기 37장

25 목요일

☐ 읽기 38장

26 금요일

☐ 읽기 39장

27 토요일

☐ 읽기 40장

3

그리스도를 위한 삶

| 초점 |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자기 부인의 삶이다

| 찬송 |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 본문 | 골로새서 3:1~4

^㉑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㉒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㉓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㉔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로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호소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 16:24

기독교는 신자들을 향하여 말하는 대로 행동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이들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생명이든지 죽음이든지, 아니면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과 격려에 초점을 맞추어 보십시오.

두 가지 위대한 계명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두 가지의 위대한 계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골 3:1~2 _____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과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명령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은 장차 다가올 미래의 집,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연구하고 배워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가야 할 영원한 본향에 대해서 배우십시오. 진정한 축복이 머무는 영원한 나라에 대하여 탐구하십시오.

※ 에스겔 34:16, 누가복음 19:10, 고린도후서 5:1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를 정리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마 6:21).

※ 아래의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놀라운 위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두 가지의 놀라운 위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골 3:3 _____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믿는 자가 죽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 로마서 6:11, 갈라디아서 2:20, 골로새서 2:2~3 말씀을 찾아서 읽어 보십시오.

가장 안전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며, 그분 안에는 모든 보화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롬 1:4 _____

고전 1:24,30 _____

두 가지 놀라운 사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다가오고 있는 두 가지의 놀라운 사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골 3:4 _____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 다음의 성경 구절을 찾아서 약속의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십시오.

- 요 14:1~3 _____

- 행 1:10~11 _____

- 살전 4:14,17 _____

- 딤후 2:11~14 _____

- 빌 3:20~21 _____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영원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빛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영원한 어둠에 놓여질 것입니다.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오늘이 그 구원의 날인 것을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행 20:24 _____

딤후 4:7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 ②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도록 매 순간 은총을 베푸소서.
- ③ 우리 구역(팀)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28 주일

29 월요일

☐ 읽기 41장

30 화요일

☐ 읽기 42장

1 수요일

☐ 시편 1편

2 목요일

☐ 시편 2편

3 금요일

☐ 시편 3편

4 토요일

☐ 시편 4편

4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선물

| 초점 |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선물을 받는 자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산다

| 찬송 |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 본문 | 사도행전 1:4~5

⁽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⁵⁾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행 1:3). 이 40일의 기간은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의미심장한 것이었습니다(행 1:4~5).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에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요 14:16,26 _____

요 16:7~8 _____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절대적인 사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에 대하여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약함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이들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겪은 일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제자들은 복음을 듣고 표적을 보았지만, 진실로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거나 자신을 부인하는 이는 그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동안에도 그들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골 2:14~15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돈을 주지는 않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인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실로 오직 성령님만이 그들을 변화시키실 수 있으며, 신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감당해야 할 복음 증거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은 매우 어려운 환경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행 1:4 _____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끄찍스러울 정도로 혹독하게 다루었다면, 세상은 제자들을 얼마나 더 혹독하게 대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명령(행 1:8)에 따라 제자들이 찾아가야 할 모든 곳,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을 원수처럼 생각할 것이고,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돌로 칠 것이며, 심지어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혹독한 형벌을 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끝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창 12:3).

※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가라”고 하시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마 7:13)?

요 16:2 _____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이시므로 제자들은 순종해야 했습니다(요 3:16). 진실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능력을 변화시키십니다. 심지어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십니다. 진실로 이 세상은 악하며 죄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보내어지는 증인들은 약하며 넘어지기 쉽습니다.

성령님이 필요하다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제자들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마 26:33).

성령을 받은 모든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그들은 담대해졌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으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흘러넘쳤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언했습니다.

※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정리해 보십시오.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셨을 때, 놀랍게도 그가 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의 자부심과 용감함은 진실로 놀랍습니다. 구걸하는 절인에게 전하는 그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행 3:6~8 /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_____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우리 모두는 매우 연약합니다. 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한없이 거칠고 험악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신령한 삶을 살면서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의 영광스러운 선물을 감사함으로 찬양하십시오.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선물을 받는 자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삽니다.

※ 오순절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써 보십시오.

엡 3:16~19

| 믿음의 기도 |

- 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 ②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 ③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게 하소서.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blue or grey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approximately 20 lines visible. The paper appears to be a standard notebook page or a sheet of stationery. There is no handwriting or other markings on the page.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3년 4월

Copyright© 2013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집필진 | 한정만 문성수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물]